

No.7 - 자오곤겐

긴푸센지 절에는 슈겐도의 본존으로서 3구의 자오곤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현재의 자오곤겐상은 1590 년경에 제작된 것으로,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종종 일반에 공개됩니다.

3 구의 입상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각각 미래, 과거, 현재를 나타내며,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짙은 파란색은 불교적 개념인 대자비, 즉 무량한 자애심을 상징합니다.

슈겐도의 시조인 엔노 교자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이 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리자 자오곤겐이 나타났다고 전해지는데, 이때 엔노 교자가 그 모습을 벚나무에 새겨 본존으로 삼은 것이 긴푸센지 절의 시초라고 합니다.

3 구의 입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. 이 분노에 찬 모습은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와 관용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자오곤겐을 에워싼 화염은 번뇌를 불태우고 악을 물리치며 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 버립니다.